



위용 드러낸 문화전당 예술극장 19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원에 조성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정이 50%에 달하면서 건물들의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아시아예술극장의 벽면, 중앙은 중극장의 원통형 타워, 오른쪽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2014년 완공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허태열-이정현 '복심투톱' 체제로

청와대 인선 마무리
정무수석 이정현
외교안보 주철기
경제수석 조원동
고용복지 최성재
교육문화 모철민
미래전략 최순홍



이정현 주철기 조원동 최성재

용의 추가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의 인선을 완료했으며 새 정부 출범을 6일 앞두고서야 내각과 청와대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청와대 내 장관급인 3실장은 '허태열 비서실장-김정수 국가안보실장-박홍렬 경호실장' 체제로 갖춰진 상태다.



모철민 최순홍

이날 최종 모습을 갖춘 '박근혜 정부'의 1기 청와대는 박 당선인의 '친정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허태열 비서실장-이정현 정무수석' 등 최측근이 배치되면서 박 당선인이 애초 구상한 '낮은 비서실'이 오히려 '강한 청와대'로 역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료 중심의 내각과 달리 박 당선인과 함께 일해온 인사가 청와대에 중용된 점도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내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이 유민봉 내장자 등 4명에 달한다. 또 청와대 3실장 9수석비서관 가운데 성균관대 출신 5명으로 가장 많다. 박 당선인은 수석비서관 이하 35명의 비서관에 대한 후속인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인사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박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로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 내정자를 포함, 호남 출신 인사가 많은 청와대 내 직책이 국가안보실장과 홍보수석 등이어서 지역발전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눈 높아...3개월 못 버티고 퇴사” “임금 낮아...차라리 백수가 낫다”

광주 '일자리 미스매치' 갈수록 심화

작년 한 해에만 대졸 청년 실업자 8025명 배출
업체 부족인원 7749명...전년보다 18.5% 증가

광주 하남산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매년 5명 이상의 생산직 직원을 뽑아야 하지만, 지난해에 사실상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지난해에 겨우 고용한 2명은 첫 월급을 받고 소식이 끊겼다. A사 사장은 “3년정도 일해 숙련공이 되면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버티려는 인내력 강한 젊은이를 찾기가 힘들다. 이게 바로 박근혜 당선인이 뽑으라고 한 '손톱 밑 가시'다”며 인력난을 해결을 호소했다. ‘대한민국 청년백수 100만 시대’에 광주지역 기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른바 구인구직 ‘미스매치(mismatch·불일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실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졸업생의 취업 눈높이가 워낙 높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광주지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원은 23만4308명이다. 이들 업체의 부족인원(정상 경영을 위한 추가 필수인원)은 774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9명(18.5%)이 증가했다. 반면 전국의 부족인원은 26만7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250명(-2.9%)이 감소했다. 인력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100도 전년 동기대비 0.5%p 상승한 3.2%로,

전국평균(2.9%)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부족인원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7103명으로 91.7%나 차지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646명(8.3%)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256명, 광업·제조업 1989명, 전기·운수 1355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종별로는 생산·건설직이 35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및 개인서비스직(219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26.4%), 재직자 평일근무 연장 및 휴일근무 확대(14.3%)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직원의 휴일근무까지 확대하는 등 전진공급하고 있음에도 매년 졸업자의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2월 기준으로

광주 특성화고와 대학 졸업자는 각각 4775명과 2만2041명으로 총 2만6816명이며, 이 가운데 특성화고는 대학진학 등 취업예외자를 제외한 졸업생 1635명 중 1429명이 취업해 87.4%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반면 군입대 등 취업예외자를 제외한 대학졸업생은 1만9248명 중 1만1217명이 취업해 58.3%의 취업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2년 한 해에만 대학졸업생 8025명이 ‘청년 백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올 2월 현재 광주에서 직장을 구하는 구직희망자는 2만3677명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기업체의 구인희망자는 4843명으로,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대학교육 축소와 통한 고학력자 과잉공급 차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임금 향상 등을 조언했다. /박지경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銀, 금호산업 예금계좌 가압류...정상화 또 꼬이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면서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채권 은행인 KDB 산업은행은 우리은행이 금호산업 예금계좌 중 295억원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19일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에 출자된 비협약채권(워크아웃 협약에서 제외된 개인기업어음과 회사채) 가운데 295억 원 만기일이 이날까지 갖지 않자 만기연장 조건으로 KAPS 주식을 담보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금호산업에 KAPS 설립자금 대출금 600억 원에 대한 상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은행 측은 금호산업이 최근 KAPS 자본 50%를 팔아 721억 원을 확보했지만 상환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라고 설명했다. 채권은행이 채권단에 속한 다른 은행의 대기업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업은행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작업을 위해 채권단이 노력중인데 우리은행이 자기 뜻만 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해당 채권이 가압류를 할 수 없는 ‘협약채권’임을 증

명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되면 금호산업은 운영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다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98개 금호산업 협약채권 기관은 21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동훈기자 exian@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jnmall.com 주문전화: 080-610-1114 전남남도인턴십수용팀 남도장터

“녹색의 땅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전남쌀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녹색의 땅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남쌀!**
농식품부의 고품질 브랜드쌀 인증 **‘Love 米’ 전국 최다 획득**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6년 연속 선정’** 및 **환경부장관상 수상**

녹색의 땅 전라남도는 전국 무농약·유기농 농산물의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함평 나/비/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영광 사/계/절/이/사/느/집	장흥 아/르/미/쌀	해남 한/눈/에/만/한/쌀
080-323-4060	080-852-6665	061-352-2475	061-862-8184	080-535-5636